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성의 고백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둘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570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3월 22일(음력 2월 23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믿음이 깊어지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

새롭게 발심을 하려면...

문 불교에 입문한 지 5년정도 됩니다. 한때는 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좌선도 열심히 하고 큰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부지런히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구나' 하는 구체적인 느낌까지도 뚜렷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발심이 되지 않았습다. 더 이상 바라볼 필요도, 그렇다고 저를 완전히 끌어안고 감싸 주고 다독여 줄 필요도 안 나타났요. 새롭게 발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계속 반복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요?

답 이 참나를 발견하는 이 문제는 성내는 거든 성을 안 내는 거든, 환희심이 나는 거든 환희심이 안 나는 거든 무조건 거기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과 선도 다 넘어 되니까요. 그래서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안되는

는 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알아 놓으신다면 뭐든지, 울바로 눈이 뜨이고 코가 트이고 맛을 알고 귀가 트이면 어디고 모르는 데 없이 착착 가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 기복으로만 나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살아서 모르니깐 죽어도 어딘지 몰라서 항상 그러죠. 개집도 들어갈 수 있고 뱀 소굴도 들어갈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런 어찌다 식만 남아서, 잠만 쉬, 그 습만 남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지 깔판한테 어떻게 찾아 들어가나요? 그러니 살아서 눈을 뜨지 못하면 안 되고, 귀가 트이지 않으면 안 되고 전 우주에 그 향기 냄새를 맡지 못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맛을 못 보죠.

그리고 본래 사람들은 신심을 쌓고 안 쌓고 없이 그대로 부처님 법을 지금 지나 가고 있습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렇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한 군데다 뭉쳐서 놓아야만 합니다.

자든 앉아 있든 서 있던 사생이 다 모두가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분이 동굴러져서 사방이 다 터졌는데 그 문을 어디서 찾느냐. 사방이 다 터졌는데 문을 어디서 찾느냐 이런 소리죠.

생활이 즉,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집어넣는 데 그게 문을 찾는 대도의 길이다. 그리고 근본 참선이다. 어디 하나 걸림 없이 참선이 들어가는 동시에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필요 없고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씹고 앉았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로 빠져야 걸림 없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도리죠.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들어서 알겠지만 인생은 덧없어 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서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잠을 자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졸릴 때에 잠자는 것도 참선이고 아주 바빠서 일을 할 때 일하는 것도 행선이고, 또 아주 바빠서 가야 할 때 가는 것도 바로 참선이다. 서있는 것도 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선이라고 하나씩 그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진리를 따져 보자고요. 진리를 보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번 그해 보세요. 전자의 선지식들은 그 참선하는 데 앉았다가 오줌 마려우면 펄쩍 일어나서 얼른 오줌 누려 가잖아. '그럼 '선이 끊어지는데 오줌은 왜 누려 가느냐.' 이라고 한방 먹었다고요. 그게 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한방 먹인 거거든요. 그럼 오줌 누지 말고 그냥 오줌 싸고 앉았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로 빠져야 걸림 없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도리죠.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들어서 알겠지만 인생은 덧없어 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서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잠을 자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졸릴 때에 잠자는 것도 참선이고 아주 바빠서 일을 할 때 일하는 것도 행선이고, 또 아주 바빠서 가야 할 때 가는 것도 바로 참선이다. 서있는 것도 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선이라고 하나씩 그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진리를 따져 보자고요. 진리를 보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번 그해 보세요. 전자의 선지식들은 그 참선하는 데 앉았다가 오줌 마려우면 펄쩍 일어나서 얼른 오줌 누려 가잖아. '그럼 '선이 끊어지는데 오줌은 왜 누려 가느냐.' 이라고 한방 먹었다고요. 그게 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한방 먹인 거거든요. 그럼 오줌 누지 말고 그냥 오줌 싸고 앉았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로 빠져야 걸림 없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도리죠.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진리를 따져 보자고요. 진리를 보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번 그해 보세요. 전자의 선지식들은 그 참선하는 데 앉았다가 오줌 마려우면 펄쩍 일어나서 얼른 오줌 누려 가잖아. '그럼 '선이 끊어지는데 오줌은 왜 누려 가느냐.' 이라고 한방 먹었다고요. 그게 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한방 먹인 거거든요. 그럼 오줌 누지 말고 그냥 오줌 싸고 앉았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로 빠져야 걸림 없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도리죠.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라고 그냥, 사형한테 이전 안 그럴 테니 살려 달라고 그래서 놔 줬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죽 술에 죽 꼴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동쳤기 때문에 고(苦)덩어리니까요. 거기서 그 방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방울마다 나오는 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울을 바로 그 마음으로써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다스리지 못하고는 나오는 대로 그냥 말도 해 버리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급살을 맞아라.' 뭐 어찌고, 그리고 미우면 '어유, 나가서 죽지 않나?'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죄업이 벗어쳐서 잘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니까 '이 동우리는 냉랭한 동우리구나.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리하고는 거리로 나뉘다가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할 안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자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박을 한다 하더라도 '애, 너 어디 가서 출자나 외았나?' 또 더울 때는 '덥지나 않았나?' 뭐라도 좀 먹었나? 애, 너에게 해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해 놓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여기서 다 맡기고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거기다가 그렇게 보뽀 한번 해 놓고 '당신을 사랑해!' 또 "너를 사랑해!" 이라고 종이애다가 요렇게 해 놓고 나가면,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력을 가지고 넓게 쓴다면 그 보금자리가 너무나 따뜻하게 바로 화복해지고 딱 데로 이빨이 되질 않아요.

맛대로 심뽀를 딱 끼우고선 돌리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심뽀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안 갈아지는 게 어딴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범입니다

주인공 자체를, 진짜로 그게 불성인니까, 그게 자 불이자 불성이자 주장자니까 열심히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뭐든지 하세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말다툼을 하더라도 그거 섬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인공에 넣고 '이거를 이렇게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놓고 '화복하고 돌 아니게 살게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리고 다 맡기고 사세요.

물건을 넣으면 잘 걸러 나오지만 심뽀를 잘 꽂질 않고 하면 그냥 그게 맛뽀가 이빨이 되죠. 그리고 그 물건도 갈아지질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면 이빨이 되고 잘 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네 사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뽀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뭐라도 넣어서 갈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는 게 어딴습니까, 안되는 게 어딴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범이요, 중용입니다. 인간이라면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보람도 가져야만 인간이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번 뒤집어 볼 생각을 하세요. 망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망상이 아닙니다. '망상을 망상이라고 끊지 않고 가는 자는 그게 열반으로 직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랬습니다. 망상은 바로 보살도를 이루는 데에 과정을 이끌어 주는 길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왜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겠습니까? 여러분은 망상이라면 그걸 끊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놓을 생각을 하십시오.

마음이 요동을 쳐서 팔팔 땀다 하더라도 팔팔 땀 게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 '에이, 죽는 것도 너로 인해서, 사는 것도 너로 인해서' 아, 그러면 팔팔 땀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두 여러분을 공부 가르치려고 주인공이 외려 댄 사람을 시켜서 룩룩 찌르게 만들고 일을 벌여 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아 가지고 바깥으로 온통 야단이 나죠. 그러하지 마시고 '아하, 이게 거기서 나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온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이구, 알았구나!' 그리고선 그냥 없애주세요. 팔쪽 술에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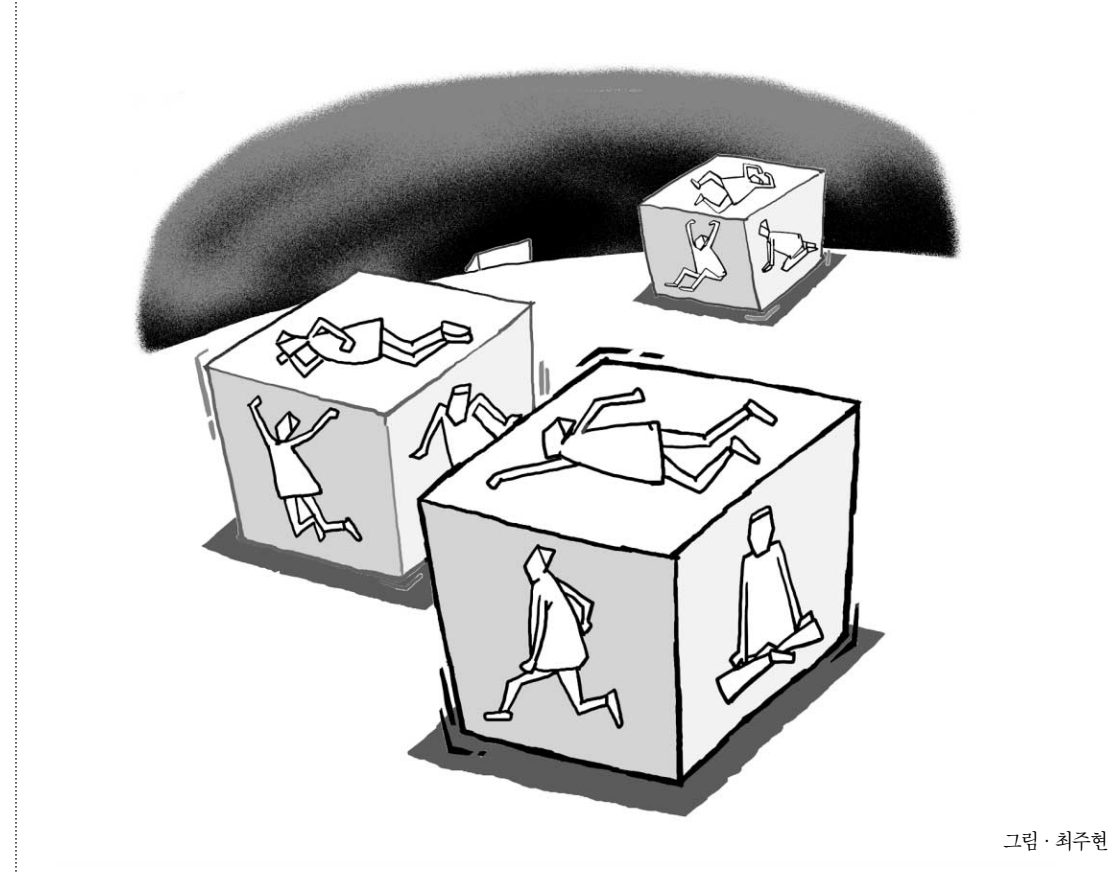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거리면 '어, 거기서밖에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선 거기 놓고, 잡았으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참 이거는 '아주 슬기롭게 내가 했다.'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또 안된다는 생각조차, 빨리 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보아 합니다. 거기 모든 걸 일체 실험해 보십시오.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거기서부터 감사하다. 거기서밖에 못한다. 물러서지 않는다. 믿는다.' 이거를 꼭 하세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옛날의 그 선지식들이 공부하면서 방편으로 해 나간 걸 고집부리지 말고 지금 현 시대에 물결치는 대로 전부가 그대로 참선인 것을 알아야 하죠. 전부 참선이 아니라면 어디에고 걸려서, 앉아 있는 데도 걸리고 서 있는 데도 걸려서, 참선이라고 하는 데도 걸리고, 좌선한다고 하는 데서도 걸리고, 인제는 다 했다는 데서도 걸리고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죠. 내가 해야겠다고 발심을 내는 데도 걸리고 말입니다. 공에 들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공에 들어서 또 편안만 하면 되는 걸 알고 잘한다고 그러죠. 몸으로 아무리 공에 들어서 그 앉아 있는 기술이 좋다고 그래도 그런 기술입니다. 참선이 아니라 그것은 기술이요. 어디까지나, 몸을 단련해서 잘 앉아 있고 오래 앉아 있는 거는 기술이지, 그것은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건 걸려가면서도 내 할 일 다 하

외국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려면...

문 스님, 여기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입니다. 여기에서도 '길을 묻는 이에게'를 보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생각세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 해도 그 자리는 하나, 바로 주인공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항상 그 진리를 가슴에 꼭 품고 왔습다. 현실 속 러시아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많은 경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요즘은 좀 불안해지고 7년을 계획했던 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기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제가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 여러분은 하나하나 매사에 등한시하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살지 못 그렇지 않으면 못 살죠. 그런데 돌 아니게 살면 등한시 안 해도 살 수 있고 들로 나누어서 본다면 하나하나가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발길에 차여서 못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공부를 해 나가는 분들이 할 일이 진짜 뭐냐. 참선이다. 참선은 어떻게 해야 진짜 참선으로 하는 것이냐. 첫째 참선으로 하려면 모든 걸 들이고 널 때에 가서 안 오는 걸 억지로 잡지 말고 나한테 오는 거 마다하지 마라. 그리고 들로 보지 마라. 모든 걸 들이고 이렇게 놓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들이고 놓을 때, 일을 하든

가 앉았다 일어나고 누웠다가 일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그냥 천연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인생으로 태어났다, 인생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명이야 하면, 앉았다 일어나고 누웠다 일하고 하는 거는 누구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 걸 아니냐 기다 할 거 없이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참선 아닌 진짜 참선이다 이거죠. 어디 한 군데라도 막혀야 이거를 막힌 데를 띄우고 또 막히지 않은 데를 찾아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어요. 다 터졌는데 어디를 띄우려고 문을 찾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을 쓸 때 돌 쪼가리가 있어서 걸려서 돌 쪼가리를 집어서 이렇게 치우는 것도 참선이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완벽하게 절감하고 정성으로서의 그 도리를 알고 지내야만 앉아 있을 때도 시간을, 즉 말하자면 3시간이다 2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앉아 있게 되면 앉아 있고 설 때 되면 서고 누울 때 되면 눕고 일할 때 되면 일하고, 자 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무사유가 다 그냥 한데 합쳐져서 터져 버려서, 터져 버렸으니깐 본래 진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터져 버렸으니 무엇을 생각으로 고민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겠느냐. 그러니깐 이렇게 방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곤 그냥 연에 걸러가니까 '요놈 또 봐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딱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 달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

문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지경인데 스님께서는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힘든 게 마음을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답 예전의 선사들은 팔 쪽 한 방울 한 방울 나가지가, 오는데 전부 문수라고 그랬죠. 요놈! 이게 주자거든, 주적이 아니라 주자거든요.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들지 마세요. 주적이 주자고 바로 이 방울 방울 나오는 것이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전부 고놈입니다. 아니, 팔쪽 속에서 나온 요놈, 팔쪽 방울이.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살림살이 이것도 팔쪽 꼴뽀 하는 거거든요. 이 생명들이 아주 간략하게 쳐서 15억이라고 해도 되고 16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견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하나가 수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타고 연애를 걸러 하도 다니기에 어느 날 사형이 보니까 '아, 요놈이 또 연애 걸러 갔거든요. 그런데 몸뚱이 놓고 그해 진짜가 가는 거죠. 가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곤 그냥 연애 걸러가니까 '요놈 또 봐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딱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 달

오직 자기 주장자에서만 그냥 생활하세요!

29면에서 계속

팔짝 쏘는 것 딱 치면 없어지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울이 울라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오는 대로 거기가다 그냥 그 주자로 쳐서 거기가다 놓으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 무명을 벗고 또 남도 동시에 무명을 벗겨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거,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다가오는 거든 그 마음 한자리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거만 놓치지 말고 가시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식위해 어떻게 놓고 관해야 하는지

문 스님께 삼 배 드리옵니다. 저는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심자입니다. 제게는 31개월 된 예쁜 아들이 있는데요. 성장 발달이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죽는다 해도 주인공이 있기에 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 정말 자식 일은 왜 이리도 놓기가 힘이 드는지요?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자식 일에 부딪치면 딱 막힙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인공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한바탕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스님, 이 못한 아미가 자식을 위해 어떻게 관하고 놓아야 되는지요. 이 어리석은 중생을 위하여 스님의 마음 한번 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답 여러분이 얼마나 그대로 진행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 이 자체를 가만히, 자기를 좀 보세요. 내가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검증해 보세요. 내 자식이 금방 차에 치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눈 하나 꿈쩍 안 하겠는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가지고 너무나 뻔 예측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금방 차에 치어 죽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슴에다가 넣고 지지고 볶겠습니까. 가슴에다 묻어 두겠습니까. 그 영혼을 그냥 승천시키겠습니까?

자식이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인연이 우리가 전자에 어떠한 과정을 살아갈 때 약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약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아주 극진히 잘하고 있다가 탁 없이져 가지고 부모에게 뼈아픈 고통을 주듯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도 자식이 아니에요. 매미가 자기 몸 꺼내려고 자기 몸을 그냥 딱 갈갈이 찢죠.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를 꺼냅니다. 자기를 꺼내서 나와도 자기입니다. 그럼, 자식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런 돌이 아닙니다. 돌이 아니면 나한테 넣어도 그저 죽어 없고 항상 같이 하면서 같이 살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회향을 할

때는 그냥 일제 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으로 흡수가 돼서 회향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보살행이죠. 그렇게 모두 돌이 아니게 보고 돌이 아니게 행해야 하고 돌이 아니게 아픔을 거두어 줘야 하고, 자기 몸이니까, 돌 아니게 이끌어가야만 그 지위가 그대로 보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잘못 알아들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것 다 하시되 착을 두지 말라 이런 거죠. 부모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착을 두고 기복으로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걸러다 보면 소도 되고 말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회향할 때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계라는 것은 잘못하면 집승으로 갔다가 또 잘하면 사람으로 오고, 이렇게 뒤범벅이 되는 골레바퀴 같아요. 수레바퀴 같단 얘깁니다. 그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력이 없으면 그렇게 안되죠. 원력이란 건 뭐냐? 믿음이요. 믿음이 깊어지면 어떠한 것도 무심지 않단 말입니다.

이 도리는 모르지만 믿음이 진실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연세가 좀 많은 보살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도리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을 있었어요.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써 사는 분이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노인은 눈 하나도 깜짝거리지 않았어요. 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게 되는 거니까 죽는 거지.' 그냥 이래요. 믿으니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식들이 잘되고 몇 십 년씩 앓다가 나중에 병이 깊어져서 죽게 된 남편도 그냥 쓱쓱 털고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원력이예요. 믿음이 얼마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바깥에서 다가오는 것이든

그 마음 한자리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것만 놓치지 않고 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럼 어떻게 해야 할 잡하는 거냐. 오직 자기 주장자, 자기 주인공에서만 생활을 그냥 하세요. 주장자에 의해서만 생활을 하세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니까요. 주장자의 시자니까요. 심부름꾼이란 얘기에요. 자기 주장자의 심부름꾼이예요. 자들의 시자요. 입산한 사람들은 자들의 시자라고 할 수 있고 여러 분한테는 자들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전에도 만날 말했죠.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몸뚱이를 배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배라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리고 내 주인공을 선장으로 비유했고요. 그럼 선장이 이끌어 가는데 가만히 거기가다 말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 래야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가는 데까지 가죠. 그런데 이거는 바람이 불면 바람 분다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별거 다 찾죠. 이렇게 하면서 서서 날뛰고 난동을 부리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딜 수가 있나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장한테 맡기고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배도 뒤집히지 않고 저절로 그냥 잘 가고 또 선장과 돌이 아니게 되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파도가 일고 생활할

강했으면 모두 그냥 그렇게들 일어났니까. 벌써 보면 알잖아요. 가정을 보고 그 사람 살아나가는 걸 보면 벌써 '어, 저 사람은 원력이 벌써 어떤 단계에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떤 회사를 크게 해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그냥 탁탁탁탁 해내고 가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IMF 세상이 돼서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잘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준 은혜를 어떡하면 다 갚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머리를 꺾어서 신을 삼아 드려도 다 못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나한테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버려라. 바로 내가 나고 내가 너라면 그대로 내가 하는 건데 뭘 어디다 갚고 어디다가 주고 하느냐. 어디다 갚을 게 있느냐. 그러나 너와 모습이 돌이 아니요. 생명이 돌이 아니요. 바로 마음이 돌이 아니요. 어려움이 돌이 아니요, 아픔이 돌이 아니니 돌이 아닌 그 사람이 어려워질랑 좀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그게 갚는 거다. 일부러 내가 모르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앓을 쓰지 말고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서로가 서로를 도와 가면서 사는 게 바로 그 빛 갚는 거다." 그러니 공부는 더더욱 중증이 되고 공덕도 더더욱 중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 (02)737-0697

제12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새로운 모습으로 어린이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2006년 어린이날 기념 ·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무료 참가,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여
목아불교박물관 한 달간 매일 개최, 인터넷 · 우편 공모

- 그림접수 : 2006년 3월 25일(토) ~ 4월 25일(화)
- 발 표 : 2006년 5월 1일(월)
- 시 상 : 2006년 5월 5일(금)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날
- 대 상 : 전국의 어린이(만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교 1~6학년)
- 참 가 비 : 무료
- 참가부문 : 유치원 · 초등 1,2학년(크레파스) | 초등 3,4학년(수채화) | 초등 5,6학년(판화)
- 특 전 : 참가자 2,000명 기념 선물 증정, 본상 수상자 전원 중요 무형문화재 제 108호 목조각장 목아 비천수 선생님의 작품 수여
- 주 최 : 월간 불광(02-420-3200), 목아불교박물관(031-885-9952)

참가방법

- 2006년 제 12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는 일체의 참가비가 없습니다.
- 전국의 어린이들(개인, 단체)이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한 달간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직접참가, 우편 · 인터넷 참가)
- 각 사찰 어린이법회 및 단체에서는 3월, 4월 중 법회나 모임 때에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를 직접 개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참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참가신청서 제출)
- 어린이 여러분이 직접 그린 그림(개인 · 단체)을 4월 25일까지 보내주시십시오(개인 · 단체 2000명 기준, 우편 ·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접수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월간불광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담당자 앞)
- 수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회 홈페이지(www.moka.or.kr www.bulkwang.org/grim.html)에 발표합니다.
- 시상식은 5월 5일 있을 예정이며 시상식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상장과 상품을 미리 보내드려 각 사찰 및 단체별로 5월 5일 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후원: 문화관광부, 불속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사)한국박물관협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한국전통문화학회, 대한불교어린이도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 (재)보덕학회, 불광사 불광법회, 신종인사, 불교방송 협찬: 롯데월드, 대림지류유통, 신우, 만불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 '금강', 월간 '불교'